

# 봉인이 풀릴 때 멈춘 바람과 울부짖는 땅

---

## I. 서론

요한계시록 4장은 **하늘의 왕좌(왕권)**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5장은 **하늘의 재판정(합법성)** 안에서 “봉인된 책”을 어린양께서 취하심으로 역사의 집행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정합니다(계 4:2-11; 계 5:1-10; 단 7:9-14; 요 5:22, 27).

그리고 6장은 그 “책”的 봉인들이 실제로 풀리기 시작하는 첫 장입니다. 즉, 6장부터는 “하늘에서 확정된 권리”가 “땅에서 실행되는 과정”으로 바뀝니다(계 5:7; 계 6:1).

그런데 성령님은 6장을 “재앙 목록”으로만 읽게 두지 않으시고, **6장의 여섯째 봉인(계 6:12-17)**에서 한번 멈춰 세우신 뒤, 7장을 “삽입장(Interlude)”으로 배치하셔서 질문 하나를 던지게 하십니다(계 6:17; 계 7:1-3).

- 계 6:17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7장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늘의 답입니다(계 7:9-17).

정리의 목표는 (1) 각 절의 상징과 표현을 성경문법으로 풀고, (2) 절과 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문맥을 따라가며, (3)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사역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고전 2:13; 요 5:39; 계 5:9-10).

---

## II. 본문 (KJB + 흡정역 마제스티 에디션)

### A. 계 6장: 여섯 봉인의 개봉(심판의 연쇄)

#### 계 6:1

- 본문은 “어린양이 봉인 하나를 여실 때”로 시작합니다. 심판의 시작점이 천사가 아니라 어린양(예수 그리스도)임을 첫 절부터 못 박습니다(계 5:7; 계 6:1; 요 5:22; 행 17:31).
- 네 생물(4장)의 하나가 “천둥 같은 음성”으로 부릅니다. 이것은
  - 왕좌에서 나오는 “번개/음성/천둥”(계 4:5)과 같은 계열의 표현이며,
  - 봉인이 풀리는 사건이 단순 재난이 아니라 왕좌의 공적 집행임을 알리는 “법정적 호출”로 읽힙니다(계 4:5; 계 10:3-4; 단 7:10).
- KJB는 이 부름을 “Come and see”로 제시합니다. 이 호출은 요한(그리고 독자)이 역사의 격변을 ‘구경거리’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관점에서 보고 증언하도록 소환되는 형식을 띍니다(계 1:19; 계 22:16; 요 19:35 / 첫 언급 - 시 66:5, 신약 첫 언급 - 요 1:39).

#### 계 6:2

- “흰 말”이 등장합니다. 계시록에서 말은 단순 이동수단이 아니라 전쟁/정복/심판의 진행을 실어 나르는 상징적 매개로 자주 작동합니다. 특히 구약에서 말·병거 환상은 하나님의 “감찰/파송/심판”的 움직임을 보여 주는 방식으로 반복됩니다(슥 1:8-11; 슥 6:1-8; 왕하 6:17; 시 76:6).
- 흰 색은 계시록에서 의/정결/승리의 이미지로 자주 나타납니다(계 3:4-5; 계 7:9, 13-14; 계 19:8, 11). 그러나 6장 문맥에서는 “참된 의”라기보다 의로 위장한 정복, 평화로 포장된 지배의 뉘앙스로 읽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겉모양의 빛”이 “참된 빛”을 가장하는 성경적 경고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고후 11:14; 마 24:5; 살전 5:3).
- 계 19장에서 그리스도는 흰 말에 타시지만(계 19:11), 그분은 “많은 왕관”과 “입의 칼”로 진리의 심판을 집행하십니다(계 19:12, 15). 반면 계 6:2의 탄 자는 활을 가지며 “왕관을 받았고(given)” “정복하고 정복하려” 나아갑니다. “받았다/주어졌다”는 표현은 ‘자기 본래의 왕권’이라기보다 허락/부여된 권세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드러냅니다(계 6:2; 계 13:5, 7; 단 7:6, 14).
- 활: 계시록과 구약에서 활은 전쟁·정복의 상징으로 흔히 사용됩니다. 칼이 “근접 심판/직접 베는 힘”이라면, 활은 “원거리 압박/위협/항복을 끌어내는 힘”의 이미지가 강합니다(시 46:9; 렘 50:14; 슥 9:13; 호 1:5). 더구나 본문은 “화살”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 국면의 정복이 “대규모 전면전”이라기보다, 조약/외교/정치적 승리를 통해 땅을 장악해 가는 그림으로 읽힐 여지가 큽니다.
- 왕관: 계시록에는 ‘승리의 관(스테파노스)’ 계열과 ‘왕권의 관(디아뎀)’ 계열이 대비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요점: *diadēma*는 “왕권”的 표지로, *stephanos*는 “승리/보상”的 표지로 주로 작동합니다.) 성도/승리자에게 약속된 관은 주로 “받는 관”(스테파노스)인데, 흰말을 탄 자의 왕관도 스테파노스로 즉, 정당한 세습 왕권(**diadem**)이 아니라, 승리-성과로 얻은 듯 보이는 권위입니다.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를 해석하는 실마리를 제공)
-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는 단순 반복이 아니라 정복이 과정(연속성)이며 더 많은 정복을 향해 확장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이기다/정복하다(극복하다)” 어휘군은 계시록에서 ‘짐승이 성도를 이기는 것’과 ‘어린양이 이기는 것’의 대립 구조로도 반복됩니다(계 6:2; 계 13:7; 계 17:14; 요일 5:4-5).
- 문맥 연결: 4-5장에서 책을 쥐하신 어린양이 봉인을 여시자마자, 땅에는 “불과 유황”이 아니라 거짓 질서의 등장(정복의 시작)이 먼저 나타납니다. 이는 “마지막 때”에 속임수·거짓 그리스도·거짓 평화가 선행한다는 신약의 경고와도 결이 맞습니다(마 24:4-5; 살전 5:3; 계 6:2).

## 계 6:3

- 둘째 봉인이 열리고 둘째 짐승이 다시 호출합니다.
- 첫 네 봉인이 네 짐승의 반복 호출로 진행되는 것은, 의도적으로 ‘4중 구조’를 만듭니다. 이 재난이 산발적 사건이 아니라 전 지구적 확산(네 방향)의 틀을 갖춘 연쇄임을 강조하는 문법으로 읽힙니다(계 4:6-8; 계 6:3-8; 마 24:7-8).

## 계 6:4

- “붉은 말”은 피/살육/전쟁의 색채가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사 1:15; 계 6:4; 계 12:3).
- 탄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고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1. 평화가 ‘자연히 사라진다’가 아니라 ‘제거된다’(빼앗긴다)는 점, 즉, 인간이 쌓아올린 질서가 스스로 붕괴한다기보다, 허락된 권세가 화평을 제거함으로써 땅의 본색(죄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구조입니다.
  2. “서로 죽이게”는 전쟁이 단지 국가 간 전쟁만이 아니라, 사회 내부의 내전/폭동/상호 살육까지 포함하는 폭력의 확장이라는 점입니다(계 6:4; 마 24:6-7; 사 57:20-21).

- “큰 칼”은 폭력의 규모·강도를 상징합니다. 칼은 심판의 도구로도 자주 쓰이며, “칼·기근·전염(죽음)·짐승”的 결은 구약의 혹독한 심판 패턴과 맞물립니다(겔 14:21; 렘 15:3; 계 6:4, 8).
- 문맥 연결: 첫째 말이 “정복(겉으로는 질서)”이라면, 둘째 말은 그 질서가 유지하던 “평화” 자체를 뽑아 버려, 정복이 결국 피로 유지되는 통치임을 드러냅니다.

## 계 6:5

- 셋째 봉인이 열리자 “검은 말”이 나오고, 탄 자는 “저울”을 가집니다.
- 검은 색은 애통/기근/절망의 결을 띕니다.
- 저울은 ‘공정’의 상징도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기근 문맥에서 배급·계량·통제의 상징으로 기능합니다. 즉, 먹을 것이 “풍성히 나눠지는” 저울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존량을 재고 또 재어야 하는 저울입니다. (애 5:10; 겸 4:10-16; 레 19:36; 계 6:5).

## 계 6:6

- “네 생물의 한가운데서 나는 음성”은 이 기근이 단순 경제 현상이 아니라 하늘 법정의 판결(왕좌 권위의 반영)이 땅에 반영\*\*되는 사건임을 암시합니다.(계 4:5; 계 6:6).
- “밀 한 되가 한 데나리온, 보리 세 되가 한 데나리온”은 ‘노동의 하루 품삯’이 ‘하루 식량’(하루 생존)으로 바뀌는 수준의 극심한 물가 폭등/생존 위기의 그림으로 읽힙니다. 성경은 기근 때 ‘비정상 가격’과 ‘먹을 것의 계량’을 반복적으로 보여 줍니다(왕하 6:25; 겸 4:16-17; 마 24:7).
  - 핵심은 “돈이 있어도 배불리 먹지 못한다”는 구조입니다.
- “기름과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심판의 제한**(허락된 범위의 통제): 기근이 전면 멸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통제된 타격으로 진행됩니다.
  2. **비대칭 타격**: 기본 곡물(밀/보리)은 타격을 받는데, 기름/포도주(상대적으로 ‘여유/사치/기호’의 상징)는 보존됩니다. 그러면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 가난한 자는 굶고,
    - 가진 자는 “남는 것”을 유지하는, 불의한 양극화가 심판의 한 형태로 드러납니다.
- 문맥 연결: 평화가 제거된 뒤(전쟁), 전쟁의 뒤편에서 늘 따라오는 것은 식량 위기입니다. 둘째와 셋째 봉인은 서로를 ‘설명’합니다.

## 계 6:7

- 넷째 봉인이 열리고 넷째 생물이 다시 호출합니다.
- 첫 네 봉인이 모두 같은 리듬(열림 → 짐승의 호출 → 말 등장)을 따르는 것은, 이것이 “우발적 사건 나열”이 아니라 계획된 연쇄(프로그램)임을 강조합니다.(계 6:7-8).

## 계 6:8

- “창백한 말”은 KJB 문법에서 독특합니다. 색채가 단순 ‘흰/검/붉’이 아니라, 시체빛(생명 빠진 색)에 가깝습니다. 원어의 결도 ‘푸르스름한/창백한’ 방향을 띕니다.
-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고, “지옥(음부)”이 뒤따릅니다. 여기서
  - 사망은 육체의 죽음을,

- 음부는 죽은 자들이 머무는 영역(무덤 권세)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직 “불못”의 최종판결(계 20장)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죽음과 무덤이 인간을 삼키는 시대적 우세가 펼쳐지는 그림입니다.(계 1:18; 계 6:8; 계 20:13-14; 고전 15:26, 55).
- “땅의 사분의 일”은 전 지구적이되 전멸이 아닌 제한된 비율입니다. “주어졌다”는 문법이 여기서도 반복되어, 심판이 통제 밖 폭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제한된 허용임을 드러냅니다(계 6:8; 계 13:5, 7).
- 죽이는 방식이 “칼/기근/사망/땅의 짐승들”로 나열되는데, 이것은 구약의 “네 가지 혹독한 심판” 패턴(전쟁·기근·전염·죽음·짐승)을 떠올리게 하며, 계시록이 구약의 심판 문법을 ‘마지막 날’로 확대 적용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겔 14:21; 렘 15:3; 계 6:8).
- 문맥 연결: 정복(1) → 전쟁(2) → 기근(3) → 대량 죽음(4).  
봉인의 연쇄는 인간 문명이 자랑하던 것들을 차례로 무너뜨립니다(정치·평화·경제·생명).

## 계 6:9

- 다섯째 봉인부터 장면이 바뀝니다. 말이 아니라 하늘의 제단 아래에서 “죽임을 당한 혼들”이 보입니다.
- “제단 아래”는 구약 제사의 문법을 빌려, 그들의 죽음이 단순 피해가 아니라 증언의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피라는 상징을 강화합니다. 피가 제단 밑에 쏟아지는 제사 규례와 “피가 부르짖는” 첫 용례가 함께 이 의미를 받쳐 줍니다(레 4:7, 18, 30; 레 17:11; 창 4:10).
- 그들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언” 때문입니다. 즉, 이 죽음은 우연한 재난이 아니라, 말씀을 붙든 자를 향한 세상의 증오가 폭발한 결과입니다.
  - 신약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박해를 받는다’는 원리를 반복하며(딤후 3:12), 계시록은 이를 마지막 때의 강도로 보여 줍니다(계 6:9; 요 16:2; 계 20:4).
- 문맥 연결: 앞의 네 봉인에서 인간의 폭력/기근/죽음이 확산되었다면, 다섯째 봉인은 그 시대가 결국 “증언하는 성도”를 죽이는 시대로 수렴함을 보여 줍니다.

## 계 6:10

- 그들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께 “얼마나 더 오래” 판단과 신원을 미루실 것인지 외칩니다. “얼마나 더”的 탄원은 시편과 대언서에서 반복되는 공의 집행을 촉구하는 기도 문법입니다(시 79:5; 시 94:3; 합 1:2; 속 1:12; 계 6:10).
- 이 기도는 개인적 복수심의 발화라기보다,
  - “거룩”과 “진리”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 땅에 거하는 자들의 피값을 공의롭게 판결해 달라는 법정적 탄원입니다. (계 3:7; 계 15:3; 계 16:7; 계 19:2).
- 계시록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단순히 지구에 사는 사람이라는 지리적 표현이 아니라, 하늘을 거부하고 땅을 자기 영원한 집으로 삼는 반역의 정체성으로 반복 사용됩니다(계 3:10; 계 6:10; 계 8:13; 계 13:8).
- 문맥 연결: 5장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겨 있던 장면과 연결하면, 이 탄원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누적된 기도의 정점입니다.(시 56:8; 시 141:2; 말 3:16)

## 계 6:11

- 각 혼에게 “흰 예복”이 주어집니다. 이는 그들의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롭다 하심/승리의 표지임을 선언합니다(계 3:4-5, 18; 계 6:11; 계 7:9, 13-14; 계 19:8).

- “아직 잠시 동안 안식하라”와 함께 더 많은 순교가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이 제시됩니다.
  - 그리고 “아직 잠시 쉬라”는 말과 함께, 더 많은 순교가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이 제시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맥은 두 가지입니다.
    1. 하나님은 심판을 ‘급발진’하지 않으십니다. 정확한 때가 있습니다.
    2. 악의 폭주는 통제 밖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안에서 ‘완결’(채움)의 시간을 향해 갑니다.(계 6:11; 계 13:7; 계 17:6; 롬 8:36).
- 문맥 연결: 다섯째 봉인은 심판의 “속도”를 늦추는 장면이 아니라, 심판의 “정당성”이 피 흘린 증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밝히는 장면입니다.

## 계 6:12

- 여섯째 봉인이 열리자 “큰 지진”과 “해/달”의 변동이 나옵니다.
- 첫 네 봉인이 “인간 역사 안에서 벌어지는 붕괴”였다면, 여섯째 봉인은 인간사의 혼란을 넘어 창조 질서 자체가 흔들리는 표적으로, “주의 날” 표적의 성경적 어휘장과 맞물립니다(욜 2:30-31; 사 13:10; 마 24:29; 행 2:20; 계 6:12).
  - 이때부터 사람들은 단지 전쟁/경제를 탓하지 못하고, “이건 위에서 오는 일”임을 직감하게 됩니다.
- 또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흔드시는” 선언은 구약과 히브리서에서 종말론적 틀로 제시됩니다(학 2:6; 히 12:26-27).

## 계 6:13

-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는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운석·천체 현상 같은 ‘낙하’ 현상뿐 아니라 하늘 질서 붕괴의 충격을 묘사하는 종말 표적의 관용구로 반복됩니다(사 34:4; 마 24:29; 계 6:13).
- “무화과나무가 큰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를 떨어뜨리는 것 같이”는 갑작스럽고 대량이며 저항 불가능한 붕괴의 비유입니다.
- “무화과나무가 큰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를 떨어뜨리는 것 같이”는 갑작스럽고, 대량이며, 저항 불가능한 붕괴의 이미지입니다(나 3:12; 계 6:13).
- 문맥 연결: 여섯째 봉인은 “심판이 시작됐다”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더 이상 도망칠 ‘정상 세계’가 남아 있지 않다는 단계로 넘어가게 합니다.

## 계 6:14

-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떠나가고”는 눈에 보이는 ‘하늘’(우리가 익숙한 안정된 프레임)이 벗겨지는 종말의 하늘 변동을 묘사하는 성경적 문법과 연결됩니다(사 34:4; 히 1:12; 베후 3:10-12; 계 6:14).
- “산들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는 땅의 ‘기준점’(산·섬 같은 고정)이 흔들린다는 표지로, 이후 대접 심판에서도 같은 어휘가 재등장합니다(계 16:20; 시 46:2-3; 계 6:14).
- 문맥 연결: 앞의 봉인들이 인류 문명을 흔들었다면, 여섯째 봉인은 인류가 의지하던 자연·지형·우주적 안정까지 흔듭니다. 인간이 살 자리가 사라지는 과정입니다.

## 계 6:15

- 왕들/위대한 자들/부자들/지휘관/강한 자들/모든 종/자유인이 모두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이는 심판이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사건임을 말합니다(롬 3:19;

계 6:15).

- “숨음”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숨는 최초의 문법(창 3장)과도 연결되며, 종말에는 더 극대화된 방식으로 드러납니다(창 3:8-10; 계 6:15).
- 문맥 연결: 4-5장에서 왕좌 앞에 모두가 엎드렸다면(예배), 6장에서는 땅의 모든 계층이 왕좌 앞에서 엎드리기를 거부한 채 숨으려 합니다. 그러나 숨을 곳이 없습니다.

## 계 6:16

- 그들은 산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 우리를 가려 달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바위 틈에 숨으라”는 대언서의 종말 경고와 직접적으로 겹칩니다(사 2:10, 19, 21; 계 6:16).
  - 여기서 비극은,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자의 도피라는 점입니다.
- 그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양의 진노”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구원자 이신 어린양을 거절한 결과, 그분은 동일한 거룩함 안에서 심판의 주로 드러납니다(시 2:12; 요 3:36; 계 6:16; 계 19:15).
  - 어린양은 5장에서 “죽임당한 구속자”였는데, 이제 6장에서는 “진노의 주체”로 불립니다.
  - 이것은 어린양의 성품이 바뀐 것이 아니라, 거절된 구원이 심판으로 드러나는 필연입니다.
- “산이 우리를 덮으라”는 표현은 복음서에서도 재등장하며(눅 23:30), ‘회개’가 아니라 ‘가려짐’을 구하는 죄의 본능을 드러냅니다(호 10:8; 뉴 23:30; 계 6:16).
- 문맥 연결: 사람들은 “회개”가 아니라 “가려짐”을 구합니다. 심판 앞에서 인간의 마지막 본능이 빛을 삽어하는 어둠으로 드러납니다.

## 계 6:17

-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는 선언과 함께,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질문으로 6장이 끝납니다.
- 여기에는 (already but not yet)의 문법이 들어 있습니다.
  - “큰 날이 왔다”는 선언은 심판이 개시(開始)되었음을 뜻하지만,
  - 그 “큰 날”的 완전한 종결은 아직 더 전개됩니다(이후 나팔과 대접으로 확대).
  -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은 “주의 날”·“진노의 날” 어휘군과 연결되며, 공의의 최종 집행을 가리키는 종말론적 문법입니다(습 1:14-18; 롬 2:5; 계 11:18; 계 6:17).
  - “누가 능히 서리요?”는 하나님 심판 앞에서 “서지 못함”을 묻는 대언서의 질문들과 맞물립니다. 동시에 7장은 “서 있는 무리”를 실제로 보여 주며 질문에 답합니다(말 3:2; 나 1:6; 계 6:17; 계 7:9).
- 그리고 성령님은 즉시 7장을 삽입하셔서, “서 있는 자”가 누구인지 보여주십니다.

---

## B. 계 7장: 삽입장(“누가 능히 서리요?”에 대한 하늘의 답)

### 계 7:1

- “이 일 후에” 네 천사가 땅 사방에서 네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합니다.
- 바람은 성경에서 종종 심판의 매개(재앙을 몰고 오는 힘)로 기능합니다. 바람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치기” 전에 한 번 멈추어 조절하신다는 뜻입니다.

- 성경에서 “네 바람”은 땅의 사방(전 지구적 범위)을 가리키는 종말/회수/심판의 어휘로도 사용됩니다 (단 7:2; 마 24:31; 계 7:1).
- “바람을 불잡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무정하게 폭주시키지 않고, 집행 전에 멈추고 조절하시는 주권을 보여 줍니다(계 7:1-3; 계 9:4).
- “땅/바다/나무”는 이후 재앙들이 닿는 영역들을 대표합니다. 즉 7장은 “심판의 압력”이 더 커지기 직전, 하나님이 구원의 표식을 먼저 찍으시는 장입니다.

## 계 7:2

- “해 둘는 곳(동쪽)”에서 올라오는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은 죽음이 창궐하는 시대에도 구원이 생명의 주권에서 나온다는 선언입니다(계 7:2; 계 6:8; 살전 1:9).
-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방향으로, 성경에서 빛·소망·새 시작의 상징어휘와 연결되기도 합니다(말 4:2; 눅 1:78-79; 계 7:2). 여기서 핵심은 방향보다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 심판의 시대에 땅은 죽음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계 6:8),
  - 인을 주시는 분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구원은 죽음의 시대에도 생명의 주권에서 나온다는 선언입니다.

## 계 7:3

-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치지 말라.”
- 심판은 무정한 폭풍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구별하고 보호하는 계획을 먼저 수행한 뒤 진행됩니다 (계 7:3; 계 9:4).
- “이마”는 공개적 표식의 자리입니다. “이마”的 표식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재앙 중에 구별하는 표식 문법과 연결됩니다(겔 9:4-6; 계 7:3).
- 또한 율법 안에서 “표식을 손/미간에 두라”는 표현이 ‘소속과 기억’의 상징으로 나타났고, 계시록은 이를 마지막 때의 “소속 전쟁”으로 확대합니다(출 13:9, 16; 신 6:8; 계 13:16-17; 계 14:9).
  - 짐승의 표가 이마/손에 나타나는 것과 대비되며,
  - 마지막 때의 전쟁이 결국 “정보전”이 아니라 소속의 전쟁(누구의 것인가)임을 보여 줍니다.

## 계 7:4

- 요한은 “인친 자들의 수”를 듣고, 그 수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4,000”임을 듣습니다. 계시록은 종종 “듣고/보고”를 의도적으로 구분하여, ‘하늘의 선언(듣는 것)’과 ‘현장의 성취(보는 것)’를 이어 붙입니다(계 7:4, 9; 계 5:5-6).
- 여기서 성경문법은 단순합니다.
  -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명시될 때, 이것을 곧바로 “교회”로 바꿔 읽는 것은 문맥을 짓는 해석이 되기 쉽습니다.
- 144,000은 12(지파) × 12,000(각 지파)의 구조로,
  - ‘무작위 일부’가 아니라 구별된 대표성의 충만을 상징합니다.
  - 동시에 숫자가 구체적으로 제시되므로, 막연한 “상징적 많음”과도 구분됩니다.

## 계 7:5

- 유다 12,000 / 르우벤 12,000 / 갓 12,000
- 유다 12,000이 먼저 배치되는 것은 언약의 지파로 우선권의 배치로 읽힙니다. 유다는 메시아(왕권)의 지파로 예언되며, 계시록에서도 “유다 지파의 사자”가 어린양으로 나타납니다(창 49:10; 히 7:14; 계 5:5; 계 7:5).
- 르우벤은 장자이지만 우선에서 내려가 있습니다.
  - 장자권이 범죄로 인해 흔들리는 성경적 용례가 르우벤에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창 49:3-4; 대상 5:1-2).
  -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도 “혈통의 장자권”이 아니라 언약의 선(유다—다윗—그리스도)을 따라 배열하신다는 느낌을 줍니다.

## 계 7:6

- 아셀 / 납달리 / 므낫세 각 12,000
- 므낫세가 독립 지파로 포함되는 것은 “요셉 계열”이 분리되어 계수됨을 보여 줍니다(이후 요셉도 다시 등장).
- 이 목록이 단순 “땅 분배용 목록”과는 다른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을 인침의 목적”에 맞춘 배열임을 암시합니다(계 7:6; 민 1:32-35).

## 계 7:7

- 시므온 / 레위 / 잇사갈 각 12,000
- 레위는 보통 제사장 지파로서 “땅 분배” 목록에서는 제외되지만, 여기서는 다른 지파들과 나란히 계수됩니다. 이는 “땅 기업”보다 하나님 소속/사명 부여의 성격이 더 전면에 있음을 떠올리게 합니다(민 1:49-53; 신 18:1-2; 계 7:7).

## 계 7:8

- 스불론 / 요셉 / 베냐민 각 12,000
- 여기서 해석의 쟁점은 “단 지파가 목록에 없다”는 점인데, 성경은 그 이유를 직접 해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정적 추정을 피하고, 최소한 “계시록의 지파 목록은 목적에 맞춘 선택적 배열”이라는 점만 분명히 불듭니다(계 7:4-8).
- 다만 단 지파는 구약에서 우상숭배와 관련된 뚜렷한 기록을 남기며(삿 18:30-31), “단이 뱀”으로 묘사되는 예언적 표현도 존재합니다(창 49:17). 이런 배경은 “왜 이런 배열이 가능한가”를 이해하는 참고가 될 수 있으나, 본문이 말하지 않는 결론을 과도하게 단정하지는 않습니다(창 49:17; 삿 18:30-31; 계 7:4-8).
- 따라서 단의 누락을 과도한 추정으로 단정하기보다, 최소한 이렇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7장의 인침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아래서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위해 ‘구별’의 표식을 찍으시는 특별한 집단을 따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 계 7:9

- 이제 요한은 “본다”고 말하며, 144,000의 ‘계수된 이스라엘’ 다음에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봅니다.
- 이 큰 무리는 “모든 민족/족속/백성/언어”에서 나와 왕좌와 어린양 앞에 서 있습니다.

- 여기서 7장은 의도적으로 두 장면을 나란히 둡니다.
  1. 셀 수 있는 수(**144,000**):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불드시는 “이스라엘의 구별된 무리”
  2. 셀 수 없는 수(큰 무리): 환난 한복판에서 어린양께로 돌아오는 “열방의 구원”
- 이스라엘(계수됨)과 열방(셀 수 없음)이 한 장 안에서 나란히 제시되는 배열 자체가,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한 목적”과 “열방의 구원”을 함께 진행하심을 드러냅니다(계 7:9; 계 5:9; 사 49:6).
- “모든 민족/족속/백성/언어”는 계시록의 구속 범위를 요약하는 반복 어휘입니다(계 5:9; 계 7:9; 계 14:6; 계 15:4).
- “종려나무 가지”는 절기적 기쁨과 승리의 상징으로,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 단순 생존자나 “패배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승리자로 서 있음을 강조합니다(요 12:13; 계 7:9).

## 계 7:10

- “구원은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께 있다.”고 외칩니다.
- 구원을 하나님께만 돌리면서도, 동시에 어린양께도 돌립니다. 이는 5장에서 이미 확인된 것처럼, 어린 양이 단지 중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중심이심을 다시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고백은 구약에서도 명확히 반복되며, 계시록은 그 구원이 어린양 안에서 성취됨을 드러냅니다(욘 2:9; 사 43:11; 계 7:10; 요 1:29; 행 4:12).
- 문맥 연결: 6장에서는 사람들이 “어린양의 진노”를 두려워했고, 7장에서는 성도들이 “어린양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같은 어린양이 거절한 자에게는 진노, 믿는 자에게는 구원으로 드러납니다.

## 계 7:11

- 모든 천사들과 장로들과 네 생물이 왕좌 둘레에 서서 엎드려 경배합니다.
- 4–5장의 하늘 예배 장면이 7장에서도 이어져, 6장의 격변이 하늘을 흔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확정 된 왕권 고백이 땅에서 집행되는 과정임을 보여 줍니다(계 4:9-11; 계 5:11-14; 계 7:11).

## 계 7:12

- “찬송/영광/지혜/감사/존귀/권능/힘”의 일곱 겹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 일곱 겹은 우연한 수사가 아니라 “완전한 찬양”의 문법입니다.
- 계시록은 같은 7중 찬양을 5장에서도 반복하며, 구약의 송영(다윗의 찬양)과도 결이 닳습니다(계 5:12; 계 7:12; 대상 29:11-13).
- 문맥 연결: 6장이 “무너지는 땅”이라면, 7장은 “무너지지 않는 하늘의 고백”입니다.

## 계 7:13

- 장로 중 하나가 “흰 예복 입은 이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고 묻습니다.
- 이 질문은 정보 부족이 아니라, 독자에게 해석의 열쇠를 주여 주려는 교수법적 질문입니다. 6:17의 질문(누가 서리요?)에 대한 해설이 이제 시작됩니다.(계 6:17; 계 7:13).

## 계 7:14

- 요한은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라고 답하고, 장로가 해석합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며, 자기 예복을 씻어 어린양의 피로 희게 한 자들이다.”
- “큰 환난”은 막연한 인생 고난이 아니라, 계시록의 문맥에서 마지막 날의 심판 국면 속에서 벌어지는 특정한 환난의 시기를 가리키는 종말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마 24:21; 계 7:14).
- “피로 씻어 희게 한다”는 역설은 복음의 핵심 문법입니다. 죄의 씻음은 인간 공로가 아니라 어린양의 피에 근거합니다(요일 1:7; 계 1:5; 계 5:9; 히 9:14; 베전 1:18-19).
- 문맥 연결: 6장의 순교자들(계 6:9-11)과 7장의 큰 무리는, 환난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며, 환난이 구원의 문을 닫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의 수확을 드러내는 자리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계 6:9-11; 계 7:14; 계 12:11).

## 계 7:15

- 그들은 왕좌 앞에 있으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왕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 핵심은 “심판을 피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피로 씻었기 때문에” 그들이 왕좌 앞에 서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 “거하신다”는 표현은 장막(거처)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며, 하나님이 단지 판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구원자이심을 강조합니다.
- 이는 구약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리라” 언약과, 신약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및 계시록의 최종 성취와 연결됩니다(레 26:11-12; 갤 37:27; 요 1:14; 계 21:3; 계 7:15).

## 계 7:16

- “다시는 주리지도 목마르지도, 해나 어떤 열기도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한다.”
- 이것은 6장의 봉인들이 만든 현실과 정면 대조됩니다.
  - 3봉인의 기근,
  - 4봉인의 죽음,
  - 6봉인의 우주적 혼란...

그 한복판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환경”을 최종적으로 뒤집는 새 질서를 약속 하십니다.
- 이사야의 구원 약속과도 직접적으로 겹칩니다(사 49:10; 요 6:35; 계 7:16; 계 21:4).
- 하나님이 환난 이후 만이 아니라, 환난 한복판에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고 위로하는” 구원 문법이 드러납니다(시 23:1-4; 계 7:16).

## 계 7:17

- “왕좌 한가운데 있는 어린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
- 여기서 그리스도론은 절정에 이릅니다.
  - 어린양이 “왕좌 한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통치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뜻합니다(계 5:6; 계 7:17).
    - 어린양이 “먹이시는 목자”로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선한 목자’ 문법의 종말론적 성취입니다(요 10:11; 시 23:1-2; 사 40:11; 갤 34:23; 계 7:17).

- “생명수”는 요한복음의 약속과 계시록의 최종 성취가 일치합니다(요 4:14; 요 7:37-39; 계 21:6; 계 22:1, 17).
  - “모든 눈물을 씻음”은 이사야의 위로 약속이 계시록에서 완성되는 흐름입니다(사 25:8; 계 21:4; 계 7:17).
  - 문맥 연결: 6장은 “어린양의 진노”로 끝나고(계 6:16-17), 7장은 “어린양의 목양”으로 끝납니다(계 7:17). 같은 어린양이 거절한 자에게는 진노,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목양으로 드러나는 계시록의 구조가 분명해집니다(요 3:36; 계 6:16-17; 계 7:10, 17).
    - 즉, 계시록의 심판은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을 영원한 목양으로 데려가기 위한 거룩한 회수 과정입니다.
- 

### III. 문맥 배경

- 4장: 왕좌 예배(하늘의 주권 선언)(계 4:2-11)
- 5장: 하늘 재판정(책/봉인의 합법성 확정, 어린양의 합당함 선언)(계 5:1-14)
- 6장: 봉인 심판(정복→전쟁→기근→죽음→순교→우주적 혼들림)(계 6:1-17; 마 24:4-29)
- 7장: 삽입장(심판 진행 중 “보호/구원”의 표식과 수확)(계 7:1-17; 갤 9:4-6)
- 8장: 일곱째 봉인(침묵 후 나팔 심판으로 확대)(계 8:1-2)

특히 7장은 편집신학적(성령님의 배열 의도)으로, 6:17의 질문을 그냥 공중에 남기지 않고 “누가 설 수 있는가”를 먼저 보여 준 뒤 다음 단계(나팔)로 넘어가게 하는 해석의 완충지대입니다.(계 6:17; 계 7:9; 말 3:2).

---

### IV. 원어 분석 (필요 범위)

- seal (*σφραγίς, sphragis*) : 봉인/소유 표시/권리의 잠금(계 7:2-3; 계 9:4)
  - open (*ἀνοίγω, anoigō*) : 열다(닫힌 권리를 ‘실행’ 단계로 전환)(계 6:1; 계 8:1)
  - crown (*στέφανος, stephanos*) : 승리의 관(받는 관/부여된 권위의 표지로 자주 사용)(계 2:10; 계 3:11; 계 6:2)
  - diadem (*διάδημα, diadēma*) : 왕권의 관(왕권 표지)(계 12:3; 계 13:1; 계 19:12)
  - conquer (*νικάω, nikaō*) : 이기다/정복하다(계시록에서 짐승-성도-어린양 대립 구조로 반복)(계 6:2; 계 13:7; 계 17:14)
  - wrath (*όργη, orgē*) : 누적된 거룩한 진노(공의의 집행)(롬 2:5; 계 6:16-17; 계 11:18)
  - tribulation (*θλῖψις, thipsis*) : 압박/환난(특히 “큰 환난”은 마지막 국면의 집중 압박을 가리키는 결)(마 24:21; 계 7:14)
- 

### V. 본문의 문맥적 해석

- 6장은 “심판의 시작”이지만, 그 심판은 곧바로 초자연 재앙부터가 아니라, 인간 문명이 의지하던 축(정치·평화·경제·생명)을 순서대로 꺾으며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짓을 폭로합니다(마 24:6-8; 계 6:2-8).
  - 7장은 그 폭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 줍니다.
    - 심판이 커질수록, 하나님은 먼저 구별(인침)을 하시고,
    - 동시에 구원의 수확(큰 무리)을 일으키십니다(겔 9:4-6; 계 7:3, 9-10).
  - 즉, 하나님의 마지막 사역은 “심판만”도 아니고 “구원만”도 아닙니다.  
심판으로 거짓을 무너뜨리시고, 그 무너짐 속에서 참된 구원을 건져 올리시는 방식입니다.
- 

## VII. 그리스도론적 해석

- 어린양은 6장에서 봉인을 여시는 집행자입니다. 심판의 중심은 “재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리 행사입니다.
  - 동시에 어린양은 7장에서 구원의 근거(피)이며, 마지막에는 목자로서 먹이고 인도하십니다(계 7:17).
  - 그러므로 계시록 6–7장을 관통하는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어린양이 여시며(심판), 어린양이 씻기시며(구원), 어린양이 먹이신다(목양).”(계 6:1; 계 7:14, 17; 계 5:9).
- 

## VIII. 신약 인용 비교

- 갑람산 강화(마 24, 막 13, 뉘 21)의 흐름—전쟁/기근/죽음/박해/우주적 표적—은 계 6장의 봉인 연쇄와 구조적으로 강하게 평행합니다.
  - 특히 “우주적 흔들림”(해·달·별의 변동)은 마 24:29의 어휘장과 맞물리며, 계 6:12–14가 “인간사”를 넘어 “창조 질서”를 흔드는 국면임을 뒷받침합니다.
  - 또한 성도들이 “진노”的 대상이 아니라는 약속(예: 살전 5장 문맥)과, 7장에 등장하는 “큰 환난에서 나온 성도들”을 함께 두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은
    - 진노의 집행과
    - 구원의 보존을서로 충돌 없이 동시에 수행하심이 분명해집니다.
- 

## VIII. 교리 오용 반박

### 1. 첫째 말(흰 말)을 곧바로 그리스도로 단정하는 오용

- 계 19의 흰 말과 계 6의 흰 말은 “색”만 같고, 표지들이 다릅니다.
  - 계 6:2는 “활/부여된 왕관/정복의 확장”
  - 계 19는 “많은 왕관/진리의 전쟁/입의 칼”

- 따라서 계 6:2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곧바로 읽으면, 2–4봉인의 연쇄(전쟁·기근·죽음)가 “그리스도의 직접 재림 직후”로 들어가면서 문맥이 심하게 꼬이기 쉽습니다.

## 2. 144,000을 “교회” 혹은 특정 집단만의 천국 티켓으로 축소하는 오용, 또는 “구원의 총량”으로 가두는 오용

-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라고 직접 말합니다(계 7:4).
- 또한 7장에는 144,000 다음에 “셀 수 없는 큰 무리(열방)”가 즉시 등장합니다(계 7:9). 즉, 144,000을 “구원받는 사람의 총량”으로 가두는 해석은 7장 자체와 충돌합니다.

## 3. “환난에는 성도가 없다”는 단순화

- 6장의 순교자(계 6:9–11), 7장의 큰 무리(계 7:14)는 환난 국면에도 분명히 구원받는 성도들이 존재함을 보여 줍니다.
  - 마지막 때의 구원은 “환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어린양의 피가 능력이기 때문에” 가능한 구원입니다.
- 

## IX. 성경 간 연결

- 출애굽 재앙 전 “구별/표식” 문법 ↔ 계 7장의 인침(출 12:13; 갤 9:4-6; 계 7:3)
  - 겔 9장의 이마 표식 ↔ 계 7장의 인침
  - “얼마나 더” 탄원(시편/대언서) ↔ 계 6:10(시 79:5; 시 94:3; 습 1:12; 계 6:10)
  - “주의 날” 우주 표적 ↔ 계 6:12–14(욜 2:30-31; 사 34:4; 마 24:29; 계 6:12-14)
  - “표(이마/손)”의 소속 상징 ↔ 하나님의 인 vs 짐승의 표(출 13:9, 16; 신 6:8; 계 7:3; 계 13:16-17)
- 

## X. 결론

계시록 6–7장은 “심판의 공포”만을 보여 주는 장이 아닙니다. 4–5장에서 왕좌의 주권과 어린양의 합당함이 확정된 뒤, 6장은 그 권리가 땅에서 집행될 때 인간 질서가 어떻게 붕괴하는지를 보여 줍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6장을 여섯째 봉인에서 멈추시고 7장을 삽입하여, 심판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별과 구원을 먼저 보여 주십니다.

- 6장: 어린양이 여시며, 땅은 무너지고, 죄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 7장: 하나님께서 인치시며, 피로 씻긴 무리가 왕좌 앞에 서고, 어린양이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능히 서리요?”에 대한 답은 한 문장으로 수렴합니다.

인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어린양의 피로 씻어 예복을 희게 한 자들이 능히 섭니다.

결국 서게 하는 능력은 인간의 버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치심과 어린양의 피입니다(겔 9:4-6; 계 7:3-4, 14; 요일 1:7).